

텍스트의 여행: 《명시별재집》에서 이동양 시의 선발, 변이와 수용

하국우(란주대학 문학원)

【요약】

심덕잠의 《명시별재집》은 이동양 시에 대한 특정한 선발—성화 시기 행려 작품과 칠언 근체시 및 의도적인 글자 수정에 치중—을 통해 이동양 시의 수용 궤적에 개입하고 재구성했다. 이러한 텍스트의 변이와 재구성은 층루성과 자주성의 이중적 특징을 갖는다. 그중 일부 변경은 청대 시학 주류에 부합하여 수용되었고, 다른 일부는 원래 뜻이나 예술 경지에서 벗어나 후세의 인정을 받지 못해 논쟁을 일으켰다. 《별재》가 이동양 시가의 수용사를 완전히 주도하지는 못했지만, 이동양 시가 후세에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중요한 고리가 되었으며, 선본이 능동적 역량으로서 시인의 텍스트 생명 도상 형성 과정에서 발휘한 무시할 수 없는 선별과 조형 작용을 명확히 보여준다.

【핵심어】

이동양; 《별재》; 선본 비평; 텍스트 변이; 수용사

동일한 시인의 작품이 어째서 일부는 끊임없이 전송되고 일부는 묻혀 알려지지 않는가? 존일의 우연성과 예술 수준의 고저 외에도 전파 메커니즘이 특히 중요하다. 시작은 전집이나 단행본에 의존해 전제되는 것 외에도, 중요한 선본에 선정될 수 있는지가 실로 광범위한 전파와 지속적인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경로다.

송대 이후 조판 인쇄술의 보급과 발전으로 시문 별집이 대량으로 간행되고 보존될 수 있었다. 명대에 이르러서는 시대가 더 가까워 이동양 등 중요 작가의 별집 유전이 더욱 완비되었다. 별집은 작품의 전모를 보존하지만, 단편 시의 경전적 지위와 후세 영향력을 논한다면 선본이 더 나은 관찰 시각을 갖는다. 경전 선본에 선정되는 것은 작품이 새로운 전파 매체를 얻었음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 수용 범위와 경전적 세력의 확대를 예시한다.

따라서 선본의 각도에서 특정 작가가 택해진 작품 수량, 편목 연유 및 변이를 심사하는 것은 심원한 문학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동양은 명시 대가로서 그의 시가가 후세 선본에서 어떤 수용 형상을 나타낼까? 면모 배후에는 어떤 시학적 취지와 역사적 고량이 있을까? 이동양 문학 생명사에 어떤 서술과 정위를 산출할까? 이를 위해 본문은 청대 경전적 명시 선본 《명시별재집》을 분석하여 선본이 작가 문학 생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1. 여행의 "비자": 《별재집》의 이동양 시 선발 메커니즘

(1) 수량의 척도: 11수의 정위, 고량과 의의

심덕잠이 편찬한 《명시별재집》(이하 《별재》)은 청인이 명시를 선택한 대표적 선본으로, 총 340여 명의 시인과 1020여 수의 시작을 수록했으며, 인당 평균 약 3수다. 이동양은 11수의 시작이 선정되었다. 이 선본에 들어가는 것은 이동양에게 그의 작품이 다시 전파됨을 의미한다. 구체적인 시작에게는 시대를 넘는 "텍스트 여행"—이 11수의 시는 이로써 문학 생명을 연속할 "여행 비자"를 얻었다. 이동양의 현존 시작은 약 3000수인데, 이 "비자"를 얻은 것은 단 11수로, 선별의 엄격함과 문턱의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왜 11수의 시가 선정되었을까? 그 배후에 어떤 시학적 선발 메커니즘과 수용 논리가 숨어 있을까? 11수는 수량상 중간 정도 편상에 속한다. 이보다 많이 선정된 것으로는 유기 21수, 고계 21수, 이몽양 47수, 변공 13수, 하경명 49수, 서정경 23수, 양신 15수, 이반룡 45수, 왕세정 40수, 사진 26수, 서병 15수, 진자룡 19수, 고강 16수 등 13가가 있으며, 대부분 명초 거장과 전후 칠자의 핵심 인물이다.

또한 설해도 11수가 선정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일정 정도 이동양이 심덕잠이 구축한 명시 보계에서 중요하지만 정점이 아닌 지위를 차지함을 반영한다.

《별재》의 편선은 허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황명시선》《열조시집》《명시종》 등 전대 선본을 참고한 기초 위에 제가를 융화하여 스스로 권형을 이루었다. 《황명시선》은 이동양 시를 4수만 선택했지만, 전후 칠자의 시작은 대량으로 선택했다. 예를 들어 이몽양 99수, 하경명 137수, 이반룡 110수, 왕세정 96수다. 또한 고계와 유기도 이 책에서 각각 10수, 8수만 선택되었다. 이러한 분포는 만명에 유행한 성령 문학에 반대하여 복고 문학을 부각시키고 아정한 창작 관념을 주장하려는 의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후세에는 논란이 있었는데, 《별재》는 그 선시가 "정덕 이전에는 매우 잘 선택했지만, 가정 이하는 형체만 남았다"고 여겼다. 주목할 만한 것은 선자 이문이 서문에서 명시 발전을 세 단계로 구분했다는 점이다: 고계와 유기의 "표연특기, 재영초견"을 첫 번째 단계로, 칠자의 "풍인지지에 대해 대우가 백천을 결하고 주공이 맹수를 구축한 공이 있다고 여김"을 두 번째 단계로, 공안과 경릉의 "소애봉호"를 세 번째 단계로 보았다.

비록 이동양 시를 명확히 정위하지 않았지만, 진자룡이 소전에서 "문정이 군언을 망라하고 풍류를 도양하니, 제석천인처럼 비록 종파와 함께 하지 않지만 실로 법문이 귀히 여기는 바"라고 평론한 것과 결합하면, 이동양이 운간파에 의해 복고 시학의 선로로 여겨지지 않았고, 심지어 후세에 익히 아는 다릉파도 구성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점익의 《열조시집》은 1600여 명의 시인과 약 21897수의 작품 및 정도한 시인 소전을 수록했는데, 그중 이동양은 347수(고악부 101수와 고체시 56수는 《열조시집·병집 제1》에 수록; 근체시 190수는 《열조시집·병집 제2》에 수록)의 방대한 수량으로 선정되어 세 번째를 차지했다. 이는 전씨가 그의 시사 지위를 높이 추종함을 충분히 체현하며, 이몽양은 단지 55수만 수록되었다.

이는 전씨가 "공동의 집에서 그가 탐박하고 심아우아한 것을 도태시키면 공동의 면목이 여전히 남아 있겠는가? 서애의 시에는 소릉이 있고 수주가 있으며 향산이 있고 미산과 도원이 있으나, 요컨대 스스로 서애가 되는 것이 완전히 있다"고 여긴

관념과 일맥상통한다. 전씨는 이동양의 문학 성취와 지위에 매우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그 시가 연원이 있으면서도 타연히 일가를 이룰 수 있다고 여겼고, 그를 복고의 권여로 구축하지 않았다.

주이존의 《명시종》에는 약 3400명의 명대 시인의 약 10172수 시작이 수록되었다. 이동양 시는 57수가 선정되어 명초 고계 138수, 유기 104수, 복고 영수 이몽양 80수, 하경명 78수 및 자신의 증조부 주국조 58수에 이어 두 번째다. 주국조는 주이존의 조상이므로 그의 시가가 후인에게 많이 선택된 것은 정리 중이다. 《명시종》에 선정된 동양 시 수량은 《별재》가 추송한 후칠자보다 명백히 많다. 후칠자 영수 왕세정은 40수, 이반룡은 더 적어 18수에 불과했다. 이동양의 순위는 주국조를 제외하면 다섯 번째에 위치하여 대다수 복고파 간장을 훨씬 초과했다.

선시 수량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11수의 정위와 고량은 《별재》가 이동양에 대한 수용이 명백한 전향을 일으켰음을 드러낸다. 이전 선본들은 그를 복고파 밖에 두고 평가하거나 다수 복고 구성원을 초월한 예술 성취를 긍정했다. 그러나 《별재》는 그를 시필성당의 복고 보계에 편입시켜 전칠자의 선도로 여기고 "홍선 이후 시교가 날로 쇠퇴했는데, 비록 이서애가 일어나 진작시켰지만 끝내 유속을 역만할 수 없었다"는 관념 하에 의식적으로 선발 수량 규모를 통제하여 그의 개풍기지공을 돌출시키고 자신의 창작 실적은 아니었다.

이러한 수용 전략은 《별재》의 독창이 아니며, 시평을 고찰하면 실제로 왕세정의 "장사와 하이의 관계는 진섭이 한고를 계발한 것과 같다"는 논단에서 최초로 발원했고, 호응린의 "이문정은 재구가 굉통하고 격률이 엄정하여 일시에 고보하고 이, 하를 흥기시켜 그 공이 매우 위대하다"는 천발을 거쳐, 심덕잠의 "이빈지가 퇴란을 역만하고 이, 하가 이를 계승하여 시도가 다시 정으로 돌아갔다"는 선택에 이르러, 최종적으로 이동양 시가의 경전화 경로에 깊은 영향을 미쳤다—그의 "복고 선성" 형상은 전대에 비록 이의가 있었지만, 광범위하게 전파된 《별재》의 형조를 거쳐 점차 후세 《명시 기사》 등 문학사 서술에 침투하여 그 나머지 면향이 일정 정도 차폐되거나 약화되었다.

(2) 체식의 체: 각체 우열의 선가 판단

청인의 선시는 대부분 체식을 중시했다. 《열조시집》《명시종》부터 왕어양의 《당현삼매집》《오언고시선》《칠언고시선》《만수당인절구》 등까지 모두 변체를 강조했다. 어느 작품, 어떤 체식, 수량의 다과를 선택하는 것이 바로 선가가 시인의 권위를 수립하고 경전 시가를 확정하며 시학 체계를 함납하는 방식이다.

이동양의 선정 작품 체식 분포는 다음과 같다: 오언고시 1수(《야과소백호》), 칠언고시 4수(《풍우탄》《야과중가천갑》《영수장가》《제화응송라집희》), 칠언율시 6수(《입춘일차가예남교》《남유추풍》《여고천석야화시천석적영주부동지》《여조몽린제인유감로사》《구일도강》《유악록사》).

이러한 분포는 오언이 칠언보다 훨씬 적고, 근체가 고체보다 약간 많으며, 근체 중 칠률이 독보적이고 오률과 절구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분포 차이는 선가 개인의 취지를 반영할 뿐 아니라 이동양 시에서 어떤 체식이 더 후세 전파력을 갖는지를 드러낸다.

첫째, 칠언 체식의 거대한 우세는 후세 수용에서의 강경한 지위를 체현한다. 이동양의 칠언 고체와 율시는 혼아정대하고 음조가 완전하며 기상이 장활한 격조로 심덕잠의 심미 요구에 더 부합하여 더 강한 "여행 에너지"를 부여받았다. 곽소우는 일찍이 "이동양은 격조설의 선성이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그의 오언시는 비록 가작이 적지 않지만 풍격이 평실한 경향이 있어 격조를 충분히 전현하지 못했다. 또한 왕부지가 이동양이 "오언 고체, 악부 가행에서 온몸을 송인의 와구에 삽입하여 미를 염하고 혀를 튕겨 북지에게 비루하게 여겨졌다"고 지적한 것도 그의 오언시가 일찍이 복고파 공격의 지점이 되었던 사실을 설명하며, 《별재》에서 오언이 냉대받은 것도 더욱 정리에 부합한다.

이동양이 이미 복고 선성에 편입되었고, 복고파 시작도 대부분 칠언으로 칭송받았다. 왕세정은 이동양의 칠언시를 "금계가 하늘을 찌르고 신통이 바다에서 노는 것 같고, 또 한신이 병을 쓰는 것처럼 중과가 뜻대로 되어 배탕이 막촉하다"고 칭했고, 심덕잠은 그를 "칠언 근체가 개합동탕하여 고방에 구애되지 않고 소릉에 준하면 거의 구체에 가까우니 고로 마땅히 일대를 응시한다"고 칭했다.

고로 이동양의 칠언시를 많이 선택한 것은 그와 후세 복고파의 창작 심미 범식과 시사 맥락상의 내재적 경속성을 돌출시키려는 뜻으로, 실제로는 이동양을 복고 선성으로 구축하는 일종의 경전화 전략과 구체적 텍스트 실천이다.

둘째, 근체시가 고체시보다 많은 현상은 명대 고시의 전체적 수용 경우와 관련이 있다. 이동양의 고체시는 비록 연원이 있지만 시교를 추송하고 한위 고시를 "또 당인의 발원"으로 숭상하는 격조 이론에서 명대 고체는 종종 "당을 지키면서 그 원천을 상궁할 수 없어 분문립호하는 자가 따라서 사를 만들 수 있다"고 여겨져 성취가 드러나지 않았다.

이동양의 적지 않은 오언 악부는 표절 모의로 지적받았는데, 예를 들어 《염가행》은 《맥상상》을 아보부추하여 생기가 전혀 없다고 비판받았다. 반면 이동양의 근체시는 비교적 철저히 "시는 육경 중 별도의 교이며, 대개 육예 중의 악이다. 악은 시에서 시작하여 룰에서 끝난다. 인성이 화하면 악성도 화한다. 또 그 소리의 화를 취하여 정성을 도사하고 지의를 감발하며 혈맥을 동탕하고 정신을 유통시켜 수무족도하면서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데 이른다"는 창작 이념을 실현했다.

기존 대각 문인의 법도 수양을 체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개인 정지를 함축적으로 기탁할 수 있어 온유돈후에 부합하고 풍교를 겸주하는 유가 시교 관념에 계합하며, 관방 시학으로서의 격조설이 강조한 "격고조향하여야 공덕을 포서하고 성세원음이 될 수 있다"는 "성감정치" 시가 이론에 부합하므로 더 쉽게 선본의 인가를 얻어 그 대표작 중 가장 광범위하게 전파된 부분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근체 중 칠률 일체만이 전면적으로 창현된 것은 이 체식이 이동양의 시학 유산에서 가장 표지성 있는 명함이 되었음을 의미한다. 칠률은 정을 경에 융합하기 적합하고, 침울돈좌가 "영탄음일하여 삼복하여야 비로소 보이고 백과해도 궁할 수 없는" 성률의 미를 체현하기 쉬우므로 심덕잠에 의해 이동양의 "우세 체식"으로 여겨졌다. 오률과 절구는 규모 제한으로 인해 그 장점을 충분히 답을 수 없어 대제 전파에서 점차 차석으로 물러났다.

종합하면, 《명시별재집》의 체식 선택은 이동양 개인 시예에 대한 판단일 뿐 아니라 그 시가의 수용사 면모 형성에 참여했다. 그의 칠언 근체(특히 칠률)가 전면에 나서서 후세가 이동양 시풍을 인지하는 주요 의거가 되어 지속적인 경전화 동력을 얻었다.

후세 반덕여는 "서에 칠고는 대기가 유행하고 역시 간경이 결하지만, 음절은 사랑스럽지 않은 것이 없다. 이 웅은 음절에 가장 유신했고 또 그가 쇠미를 진기하고 중류를 토납하여 실로 성시의 일대종이다"라고 했고, 왕단은 더욱 "서에 칠고는 소릉, 미산 사이에서 나왔고; 칠률은 청일유려하고 사사에 공하여 가장 유몽득에 가깝다"고 말했는데, 모두 동양 칠언체에 대한 청래를 체현했다.

반면 다른 체식의 작품은 일정 정도 차폐되어 선본 전파 경로에서 점차 암담해졌다. 《별재》의 시체 선발은 이동양 시학 생명의 후세 궤적에 깊은 영향을 미쳤고, 선본이 문학사 인등에서 발휘한 능동적 조형 작용도 체현했다.

(3) 시간, 공간과 주제의 선택: 언제 어디서 어떤 정이 법안에 들 수 있는가?

《별재》의 선발은 이동양의 11수 시작에 청대 시학 시야에 진입하는 "여행 비자"를 발급했다. 이들 선택된 텍스트의 창작 시공과 주제 특징을 분석하면 후세에 경전화 "여행"을 개시할 수 있었던 연유를 더욱 그려낼 수 있다.

선택된 시 중 6수는 행려 도중에 지어졌다(《야과소백호》《풍우탄》《여조몽린제인유감로사》《유악록사》는 《남행고》에 수록, 《야과중가천갑》《구일도강》은 《북상록》에 수록). 단지 5수만이 그가 장기간 거주한 경성에서 지어졌다. 이동양은 "관각에 역임하며 40년간 국문을 나가지 않았으므로" 재경 작품이 당연히 그가 몇 차례 일로 외출했을 때 지은 것보다 수량이 더 많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 분포는 이동양의 실제 창작 수량과 선명한 반차를 이루어, 그의 행려 시작이 《별재》에서 더 높은 경전화 가치를 얻었음을 드러낸다. 이동양은 비록 대각에 오래 거했고, 후세도 종종 그의 "좌옹도서소가일, 몽수관개입신년" "우국지저서권리, 방조장억루성중"으로 그 시경이 협애함을 의심했다.

그러나 바로 이들 수가 많지 않은, 출경 과정에서 산생한 시작이 후세의 "대각지체, 동리벽원, 장사도류"에 대한 고정 관념을 타파하고 더 진실한 개인 정지와 더 개활한 사회 시야를 전현하여 후세 선가의 청래를 얻어 시대를 초월한 "여행 자격"을 쟁취했다.

창작 시간을 고찰하면, 행려시는 기본적으로 모두 성화 중기 전에 지어졌다. 《남행

고》는 이동양이 성화 8년 부친을 따라 고향 다릉으로 돌아가 조상을 제사하고 장사하면서 길에서 지은 시문집이다. 《북상록》은 그가 성화 16년 남경에 가서 과거 시험을 주관하고 경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지은 시문집이다.

이 외에 다른 5수 재경 시가도 모두 성화 연간에 지어졌다. 《여고천석야화》는 고북이 성화 때 일로 조옥에 하옥되었다가 후에 호남 영주부 동지로 폄적될 때 지어졌다. 《예남교》의 창작 배경은 이동양이 한림원 학사로서 성화 15년 황제를 따라 남교에 가서 천제를 지낸 것이다. 《남유추풍》도 성화제를 배종하여 어유할 때 지어졌다. 《제화응송라집희》는 다릉 동향 라감에게 증정한 것으로 역시 성화 때였다.

고로 시간축으로 보면 모든 선정 시작이 성화 때 지어졌고, 이동양이 흥정 시기 위극인신했던 작품은 모두 배척되었다. 이는 심덕잠 개인의 취미를 반영할 뿐 아니라 거시적 층면에서 "시궁이후공"이라는 전통 수용 관념의 강대한 조형력을 입증했다.

이동양이 성화 일조 정정 23년 동안 단지 "선서길사, 수편수, 루천시강학사, 충동궁강관"의 위관 경력만 가졌던 것은 이 시기 그의 창작이 침잠하료, 회재불우의 상태에 처했음을 의미하며, 그 시작에 온축된 침울과 진정이 후세가 경전 시인에게 기대하고 상상하는 것에 더 부합했다.

반대로 그의 만년 대각 중신 신분과 상응 창작은 일정 정도 이들 텍스트의 후세 수용과 전파를 저해했다. 이른바 "문제는 위존으로 인해 재가 감하고 사왕은 세궁으로 인해 가가 증익한다"는 것처럼, 장기간 분노출시인이라는 수용 관념으로 인해 그의 만년 작품은 대부분 별집에 체류하여 더 광범위한 문학 여행을 개시하지 못했다.

행려 시가는 주로 시인 개인의 정지를 서발하고 여도 중 본 사회 현실을 반영한 작품이다. 《남행고》 4시는 3수 칠률과 1수 오고로, 《야과소백호》는 시인이 남하 도중의 표박 수회를 체현했고, 《풍우탄》은 경도해랑, 수도옥탑을 빌어 저층 백성에 대한 동정을 표현했으며, 《여조몽린제인유감로사》는 시인의 국사에 대한 관절을 표현했고, 《유악록사》는 시인의 고향에 대한 회념을 서발했다. 《북상록》은 2수 칠고로 각각 기려의 생활과 선부의 간신을 묘사했다.

이동양은 대각 기식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후세에 비판받았는데, 《별재》에는 2수의 대각시가 선입되었다: 《남유추풍》 《입춘일차가예남교》. 비록 심덕잠이 상징적으로 대각기가 농후한 응제시 2수를 선입했지만, 그의 주도 의도는 여전히 대각 재상

신분을 초월한, 더 혈육이 있는 시인 형상을 조형하는 데 있었다. 이는 《별재》가 "삼양" 대각체를 철저히 배척한 이념(양사기는 단지 2수만 수록, 양영, 양부는 전수 낙선)과 일맥상통한다. 이는 개인 정지와 사회 관회를 온축한 텍스트가 순수하게 가공송덕, 응수창화하는 텍스트보다 더 강대한 "여행 에너지"를 온축하여 더 쉽게 후세 독자에게 수용 전송됨을 표명한다.

2. 여행의 "흔적": 텍스트 변이와 선가의 시학 개입

(1) "개시"의 합법성: 선본 비평의 권력과 경계

선본은 일종의 중요한 문학 비평 형태로서 그 연원은 선진까지 추소할 수 있다. 《시경》은 주대 사관, 악관이 "채시관풍" 제도를 통해 편찬한 것으로 이미 초보적인 선본 추형을 갖췄다. 후세 《초사》《문장유별집》《문선》《옥대신영》 등도 모두 종사증화하여 호탕한 전통을 형성했다.

선가의 직책은 "선"—즉 특정 문헌원(구전, 기억, 단행본, 별집, 선집, 총집)에서 편목을 택취하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발, 편배, 평점 내지 텍스트 개동을 통해 자신의 문학 이념을 관철하는 데도 있다. 선본사를 고찰하면 선택한 시문에 대해 문자 가공을 진행하는 것은 상견한 현상으로 거의 선가 권력의 묵시다.

비록 《시경》이 확실히 공자의 "산삭"을 거쳤는지 지금까지 논란이 분분하지만, 그 성서 과정 자체가 편자 공자의 중대한 텍스트에 대한 사선, 아화 작업을 온축했다. 소통 《문선》이 수록한 작품도 종종 작가 별집이나 사적 소재와 이문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서도부》는 《한서·반고전》에 비해 "중류지외, 견용기서" 한 구가 더 있고, 《여산 거원절교서》를 잘못 의제하여 후세가 혜강과 산도의 단우를 오판하게 했으며, 수록한 위문제 《여조가령오질서》 편명도 《삼국지·위서·왕찬전》 배송지 주인 《위략》 및 《태평 환우기》 등 기재와 상이하다. 《옥대신영》에도 텍스트 자구 차이가 적지 않다.

만명 이강, 《황명시선》《열조시집》《명시종》 등 중요 선본도 텍스트 교개처가 많이 있다. 이로 보면 《별재》의 선시 개동은 고레나 망위가 아니라 실제로 선본 비평 전통에 깊이 식근한 일종의 권력 실천이다.

이론 층면에서 보면 선본의 "선" 자체가 일종의 강유력한 가치 평판으로, 시인과

시작이 경전 서열에 진입할 수 있는지와 관련이 있다. "개"는 이 비평 권력이 텍스트 내부로 연신 심화된 것으로, 선가 시학 관념의 더 직접적이고 개입적인 체현이다. 롤랑 바르트가 말한 "독자의 탄생은 작자의 사망을 대가로 환취해야 한다"는 것은 작자의 텍스트 의의에 대한 절대 농단을 해구하고 독자 및 비평가, 선가의 의의 생산에서의 능동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다.

선가는 고도의 문학 수양을 갖춘 "초급 독자"로서, 그 개동 행위는 "작자 이사" 이론의 예연과 실천으로 볼 수 있다. 그 의도는 텍스트에 대한 정세한 조정을 통해 원시가 자신 및 소처 시대의 심미 이상과 시학 규범에 더 계합하도록 하는 데 있다.

그러나 선가 개동의 권력은 만무변제가 아니다. 그 유효성은 일정한 시학 경계를 준수하는 데 건립되며, 그렇지 않으면 심지어 비평가에 의해 광배로 여겨질 수도 있다. 요컨대 시선의 텍스트 변이는 원원유자하고 이론 지탱을 구비한 비평 행위다. 그것은 선가가 그 시학 권력을 행사하는 표지이자 심신 운용이 필요한 예술 "재창작"이다. 그 합법성은 역사 전통, 이론 천석과 유효 개동의 기초 위에 건립되며, 그 경계는 원작에 대한 존중, 예술 효과의 추구 및 의경 완성성의 유효에 의해 공동 규범된다. 《별재》의 이동양 시 개동은 바로 이런 권력과 경계의 장력장에 두고 객관적으로 심대해야 한다.

(2) 텍스트 변이의 인습과 선창

[표를 통해 원시 텍스트가 후세 선본에서 발생한 변이를 삼선표로 나타내어 《별재》의 원시 개동에 대한 선택, 인습과 독창을 더 명확히 전현하려 했다. 표의 공백은 해당 선본 록시가 정덕본 《회록당집》 소재와 동일함을 나타내고, 수록되지 않았으면 미수라고 표명했다.]

《별재》와 《회록당집》 및 전대 선본의 세치한 비감을 통해 이동양 시가 텍스트가 청대 수용 과정에서 경력한 복잡한 유동과 중조를 관찰할 수 있다. 이런 변이는 고립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명백한 역사 층루성과 주체 선창성을 갖는다.

첫째, 인습 면에서 《별재》의 변이는 명백히 전대 선본(특히 《명시종》)의 기유 교개 관념을 접수했다. 11수 선시 중 5수가 《명시종》에 보이며 공공 수량이 가장 많다.

형제도존으로 여겨진 《황명시선》과 문호지견의 《열조시집》에 비해 《별재》는 전자를 더 긍정했다. 《명시종》에 4수의 이문이 존재하고 총 10처 개동이 있는데, 《별재》는 그중 8처를 계승하여 《명시종》에 대한 인가를 보였다.

접수된 8처 전대 개동은 대부분 시의를 더 응련, 아화하거나 의상을 더 정준하고 성운을 더 화해하게 하는 데 집중되어 텍스트 "완전화"와 규범화를 추구하는 총체적 경향을 체현했다. 이는 《별재》가 심미 입장에서 《명시종》의 입위를 반영한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인습이 청석한 층루성 특징을 정현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풍우탄》 텍스트는 이미 《열조시집》에서 3처 수개가 발생했고, 모두 《명시종》에 계승되었으며, 후자는 다시 2처 신개를 증가했다. 《별재》에 이르러 전대 누적의 4조 이문을 전부 접수했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6처 수개를 신증했다.

마찬가지로 《황명시선》과 《열조시집》의 《예남교》시 개동도 모두 《별재》에서 연속되었다. 타서를 고찰하면 "여무"를 "화로"로 개한 것은 《황명시선》 개후부터 손승택 《천부광기》, 장옥서 《영물시선》, 장영, 왕사정 《연감류합》 등에도 계승되어 《별재》에 이르러 연용했을 뿐이다.

또한 《유악록사》시의 "천재"를 "천원"으로 개한 것도 심씨 독창이 아니라 일찍이 강희 때 조녕이 찬한 《악록서원지》에서 이미 그러했다. 이는 이동양 시가 텍스트가 명말청초 전파련에서 안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역대 선본과 인서의 부단한 초록, 택취와 교개 중에 지속 유동했으며, 그 최종 《별재》에서 정현한 면모가 이미 다개 시대의 접수 기억을 첨가했음을 표명한다.

둘째, 《별재》도 그 텍스트 여행에 현저한 자아 특질을 주입했다. 전서는 11수 시에 대해 총 27처 텍스트 개동을 진행했는데, 그중 18처가 신개로 그가 계승한 9처를 원초했다. 이는 비록 이동양 시가의 텍스트 변이가 일찍 연원이 있었지만, 《별재》가 실로 피선시 변동 폭도가 최대, 정형 작용이 최강인 환절로서 그 선본 접수사상의 관건 참점임을 표명한다.

《별재》의 전대 선본에 대한 2처 구체적 거척도 자아 특질의 현현이며 수의로 한 것이 아니다. 첫째, 《야과소백호》시 앞 두 구는 호상 무색이 공과 연결되고 월광이 초추하는 야경을 쓰고, 세 네 구는 경에서 인으로 들어가 야완 풍이 빈발을 부는 촉각과 정신 황홀의 심리를 썼다. 《명시종》이 이 두 구를 삭제하면 전시가 순전히 경물과

행역의 객관 묘술이 되어 사람이 그 중에 있는 대입감이 적어지고 시정이 단박화된다.

둘째, "타"와 "타"는 단지 쓰기가 다를 뿐이다. "파"는 작은 산파를 가리키고 "피"는 경사불평한 대파를 가리킬 수 있다. "파"를 "피"로 개하는 것은 산파 기복지세를 강화하려는 의도로 영수장이 여평지처럼 다니는 기능을 더 돌현한다. 이로써 《별재》가 교개 의거나 심미 판단에서 자신의 독립 고량이 있고 기계적 인습이 아님을 엿볼 수 있으며, 이는 텍스트가 접수 과정에서 직면한 다원 조형도 측면에서 반영한다.

물론 다른 독창처는 더욱 심덕잠의 "온유돈후, 사위극칙"의 격조 시학관이 어떻게 주동적으로 개입하여 텍스트 형태를 중조했는지 전현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작품이 청대 관방 시학의 심미 이상에 더 부합하도록 했다.

첫째, 언어의 준확성, 아정성을 규범하여 정도, 선명, 집중하고 장력이 풍부하게 했다. 예를 들어 "굴복"을 "굴수"로 개하여 더 정준한 어휘로 응응 자태를 각화했고, "쌍파"를 "구파"로 개하여 표현이 더 충격력을 갖게 했으며, "재안"을 "입안"으로 대체하여 시각의 주동성과 계복상남이 박면이래하는 감각을 강화했다.

심씨는 "고인이 연자법을 폐하지 않았지만 의로써 승하고 자로써 승하지 않았다. 고로 평자견기, 상자견협, 진자견신, 박자견색할 수 있다"고 여겼는데, 자사의 추련은 근본적으로 신기, 선활한 심미 효과를 산생하기 위함이므로 의상의 충격력을 증강하여 더 감염력을 갖게 하는 것이 그의 개시 준칙이다.

예를 들어 "장풍"을 "음풍"으로 개하여 음삼숙살지기를 선염했고, "고당"을 "공암"으로 대체하여 응준이 처한 환경을 인조 건축 공간에서 벗어나게 하여 더 황한준발하게 보이고 그 야성 기질을 강화했으며, "천풍"을 "대풍"으로 개하여 풍력이 더 보편성과 충격력을 갖게 했다. "강남"을 "천남"으로 개하여 구체적인 "강남"을 더 요원하고 더 상징 의의를 갖는 "천남"으로 전환한 것이 텍스트의 구체적 실천이다.

둘째, 정감의 함축성을 내화하여 그의 "그 언은 얇으나 그 정은 깊다. 만약 질직부진하여 절무온축하면 무정한 말로 사람의 정을 동하려 하니 어렵다"는 시론 주장을 응관했다. 예를 들어 "쌍투"를 "점수"로 개하여 더 함축적이고 아치한 어휘로 비상을 표달하고 직로를 피하여 정감 표달이 더 내렴심침하게 했다.

셋째, 시경의 보편성을 추구하고 구체적 장경을 재의하지 않았는데, 이도 그가 시를

읽는 것이 "오직 가이홍야. 전인시를 읽으면서 단지 훈고를 구하고 사장기문의 부를 얻득할 뿐이라면 비록 많아도 어찌하리?"라고 여긴 관점에 부응한다.

예를 들어 소자주 "정통갑자년(세)"을 삭제하여 구체적 역사 지섭을 허화했고, 제목의 "남귀" 이자를 삭제하여 시가 창작 배경을 은거했으며, "화류별운"을 삭제하여 증답유별의 호동 관계를 삭약했고, 단지 "유악록사" 네 자만 보류하여 동유자 신분, 장합 등 세절을 사기한 것은 모두 시가가 사실 기록에 구애되지 않는 이론을 관철했다. 이들 부텍스트에 대한 산삭은 시제를 더 간련하고 초점이 더 돌출되게 하려는 뜻이다.

총지, 심덕잠은 세치입미한 텍스트 간예로 계통성있게 이동양 시가 언어의 아정성, 의상의 충격력, 정감의 함축성 및 시경의 보편성을 강화했다. 이들 개동은 그가 격조를 핵심으로 시교 관념을 융회한 시학 사상의 생동한 체현이며, 최종 목적은 청대 심미 이상에 더 부합하는 이동양 시가 경전 선본을 조형하고 이들 텍스트의 후세 유전 면모와 접수 방향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3. 여행의 "목적지": 경전화를 도모한 접수 평가

"접수"는 선발과 변이 효과를 검험하는 최종 고장으로, 이번 "텍스트 여행"의 최종 목적지를 결정한다. 《별재》에서 선발되고 정현된 이동양 시 면모는 그 텍스트가 명, 청 양대를 초월한 "여행"에서 부단히 열독, 초각, 선발과 수개된 역사 산물이다. 청대 선본은 전대 누적의 변이를 접수했을 뿐 아니라 새로운 시대 락인을 찍어 이동양 문학 생명사의 후기 구축에 깊이 참여했다. 그렇다면 이들 선택되고 수개된 시작은 최종적으로 어떤 구체적 형태로 계속 후세 독자에게 열독되고 접수될까?

(1) 성공한 경전화: 후세에 접납된 "신" 텍스트

《별재》의 이동양 시가 선발과 개동 중에는 후세에 접수된 안례가 존재한다. 특히 심덕잠 자아 선창의 개동이 후세 텍스트에 흡납된 것은 더욱 모종의 수개가 일정 정도 후세 독자의 심미 취미와 시학 표준에 계합하여 이동양 시가 경전 면모의 조형에 참여했음을 설명한다.

예를 들어 《풍우탄》의 "백흑"을 "흑백"으로 개한 것은 팽단숙 《설야시담》(청 건륭 42년 각본)에서도 "동양 칠언 역시 기어가 많으니 《풍우탄》은: '쟁영거랑고비산, 수저 장경작인립' 또 '음양구도착흑백, 오토불감동서분'이 직필창려의라"고 했다. "도멸"을 "도몰"로 한 것도 등현학 집 《원상기구집》(도광 23년 각본)에 연습되었다.

《영수장가》의 "청벽"을 "청벽"으로 개한 것은 왕단 《명삼십가시선》과 오채 《운아》(청 가경 23년 각본)에서 "수채청벽홍랑간"으로 했다. 시의 "파타"를 "피타"로, "쌍파"를 "구파"로 개한 것도 은련수, 왕만방 찬 《양양부지》(청 광서 11년 각본)에 계승되었다. 또한 이 두 수 시의 텍스트 변동은 가도 때 주재, 냉창언이 편한 《송원명시삼백수》에 전부 접납되었다.

심덕잠의 이들 자개가 후세 텍스트에 접수될 수 있었던 것은 우연 요소가 아니며, 그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이 귀결할 수 있다:

첫째, 언어의 표달 습관이 문인시의 심미 요구에 부합한다. 예를 들어 "백흑"을 "흑백"으로 개한 것은 모두 풍우가 올 때 천혼지암, 흑야백주가 전도착위하는 시의를 표달하는 데 확보하면서 언어의 순창에 더 온합한다.

둘째, 연자의 정도로 시의 언어가 현실 장경에 더 첩합하여 의상의 충격력을 강화했다. 예를 들어 "도멸"을 "도몰"로 개한 것은 광풍폭우 세력이 신맹하여 매우 빨리 주도를 엄몰시키는 동태 과정을 돌현했다. "파타"를 "피타"로, "쌍파"를 "구파"로 개한 것도 이류에 속하는데 전문에서 이미 서술했다.

셋째, 심덕잠 개인의 시단 성망과 《별재》의 정심 선목과 밀불가분하다. 주재 등이 편한 《송원명시삼백수》의 명시 극대다수 시편은 기본적으로 《별재》에서 취했다. 비록 심덕잠 신후 휘예참반이지만, 그가 관방 색채를 갖는 시학 주장이 일찍이 건륭제에게 인가받았고, 일대 제사의 권위 지위도 《별재》의 광범위한 유전을 추동했다. 따라서 이러한 선본이 개동후의 텍스트를 독자에게 추향할 때, 그 자체가 매우 강한 시범 효응과 영향력을 가져 쉽게 "정본"이나 "선본"으로 여겨져 후속 문헌에 계승되었다.

《별재》의 부분 성공 개동은 이동양 선정시 텍스트를 위해 더 쉽게 후세에 접수되는 신행태를 확립했다. 이들 텍스트는 《별재》의 광범위한 전파에 빙자하여 점차 허다한 독자 심층에서 이들 시가의 표준 면모가 되었고, 심지어 모종 정도에서 원시 판본을 차폐했다. 이 과정은 선본 비평이 문학 경전 구축에서 거대한 권력을 생동하게 체현

했다. 선가는 "선"을 통해 어떤 작품이 경전 서열에 진입하는지 결정할 뿐 아니라, 종종 "개"를 통해 텍스트가 최종 어떤 면목으로 유전되는지 참여하거나 심지어 주도하여 문학사의 서술 면모에 영향을 미친다.

(2) 실패한 간예: 쟁의와 회류

《별재》의 이동양 시 텍스트 개동은 비록 후세에 접납된 예가 적지 않지만, 그 부분 간예도 시간의 검험을 경수하지 못하여 쟁의를 일으키거나 심지어 후세 문헌에 병기되어 텍스트 접수의 "회류" 현상을 정현했다. 이들 실패 안례는 반면에서 선가 권력이 부당하게 운용되면 오히려 텍스트의 경전화 과정을 저해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후세 중요 총집과 방지가 이동양 시를 수록할 때 보편적으로 《별재》의 개동을 채납하지 않았고, 적지 않은 곳에서 여전히 원작이나 다른 판본을 연용하는 것을 견지했다. 쟁의가 존재하는 곳으로, 예를 들어 《유악록사》 일시 《별재》가 "계북상남구재안"을 "계북상남구입안"으로 개했는데, 《명삼십가시선》은 "입안"으로 했지만 등현학 《원상기구집·권십》, 이원도 《중수남악지·권십구》(광서 9년 각본)는 "구입안"을 사기하고 여전히 "구재안"을 준수했다. "구입안"은 비록 두보의 "절제입귀조"와 자못 동공지묘가 있지만, 원자가 전시한 중용 기상도 잃었다.

또 예를 들어 앞에서 서술한 "흑백"의 개동은 《원상기구집》과 《명삼십가시선》에서 모두 접납되지 않았고, "피타"와 "구파"도 역시 그러하다. 이는 후세 편찬자가 심덕잠 수개에 대해 쟁송이 나타났음을 현시한다.

다시 예를 들어 《제화응송라집희남귀》《여전태수제공유악록사사수석상작》에서 《별재》는 원제를 삭감하여 전자는 "남귀" 이자를 거하고 후자는 단지 "유악록사"만 존재한다. 그러나 등현학이 이 두 시를 수록할 때 여전히 완전한 시제를 연용했고, 수록한 《제화응》시도 심씨가 개한 한 곳도 인습하지 않았으며, 《명삼십가시선》도 역시 그러했다. 《호남통지·권이백삼십팔·방외지일》(광서 11년 각본)도 완정히 제를 존재하여 모두 《별재》의 간화 처리를 채납하지 않았다.

상술한 개동이 분기가 존재하거나 성공적으로 후세에 접수되지 못한 주요 원인은: 첫째, 단지 시예에 빙자하여 원의를 탈리했다. 《송라집희》시는 상전한 제화시로,

시가 쓴 것이 화가 그린 것과 첩합해야 시작 수준을 볼 수 있으니, 이른바 시중유화, 화중유시가 이와 같지 않겠는가. 명말 유민 항성모의 《제자화대수》 일시는 원시만 보면 그 미연대의를 알기 어렵지만, 그 화를 보면 전폭이 주홍이고 대수가 중천에서 있으며 사무린봉하니, 곧 자신이 비록 명청 혁정의 판탕을 당했지만 인격이 독립 불굴한 유민 정화를 쓴 것임을 알 수 있다. 고로 제화시는 화작을 탈리하여 망개하기 쉽지 않다.

심씨는 원화를 보지 못하고 단지 시예에 빙자하여 수의로 변동을 가했다. 예를 들어 "고당"을 "공암"으로 개한 것은 원화가 혹시 응응이 고당 위에 서 있는지 모르는 의개이고, "장풍"을 "음풍"으로 한 것도 화중이 구경 어떤 바람인지 모른다.

둘째, 수의로 제를 삭하여 원시 창작의 관건 어경과 정감 배경을 잃었다. 《송라집회》시에서 "남귀"를 삭거하면 송우남귀의 증별 어경을 잃는다. 《유악록사》 시제의 원래 "여전태수제공"은 동유자 신분을 점명하고, "석상작"은 창작 장경을 교대하며, "사수"는 조시 중 한 수임을 설명하는데, 거한 후 원표제가 승재한 풍부한 배경 정보를 잃었다.

《여고천석야화》시에서 "화운유별"을 삭거했는데, "화운"은 본시가 고천사가 먼저 시를 짓고 시인이 다시 운에 의거해 지은 사작 동인임을 점출했다. 삭거한 후 독자는 이 시가 회응지작임을 직접 획취할 수 없고 오히려 작자가 단방면으로 봉우가 편적된 것에 대한 감개인 것처럼 오해하게 한다. "유별"은 더욱 시인의 우인에 대한 불사를 체현하는데, 삭거한 후 원유의 세니한 정감을 삭약했다.

심덕잠이 시제의 간화와 취초를 편면적으로 추구한 것은 그 개인 심미 편호의 강렬한 체현으로, 때로 강가어인을 면하지 못했다. 후세 학자는 존진이나 지인논세의 각도에서 출발하여 원제 보류를 더 경향했다.

셋째, 재력이 불체하여 농교성졸했다. 선가 개시는 "점철성금"의 필력이 필요한데, 재학이 불제하면 오히려 "점금성철"이 된다. 청인 주정진은 일찍이 심덕잠의 개시 행위를 기풍하여 그가 "왕왕 교유조작을 면하지 못하여 정성을 질애한다"고 여겼고, 심지어 직언하여 "우이위개가불필야"라고 했다. 이런 비평은 일부 후세 문인이 심덕잠의 과도한 텍스트 간예에 대한 반감과 그 개시 능력에 대한 의의를 대표한다. 그가 개한 곳이 원작보다 우월하지 않고 심지어 생경별뉴하다고 여겨지면 자연히 유전하

기 어렵다.

이들 후세에 광범위하게 접수되지 못한 개동은 선본 비평의 경계 소재를 제시했다. 심덕잠의 텍스트 간예가 일단 원작 원의, 창작 배경과 예술 완성성을 존중하는 원칙에서 벗어나면 쉽게 일종 권력의 남용이나 재력의 오용으로 여겨진다. 후세는 문헌의 "쟁의"나 "회류" 현상—즉 부분 접수하거나 그 개동을 병기하고 원본 텍스트를 회용하는 것—을 통해 실제로 무성의 비평을 진행하여 시인이 더 가신하고 더 우이한 텍스트라고 여기는 것을 중신 확인하여 이동양 시가 텍스트가 접수 장하에서 또 한 차례 사선과 정형에 참여했다.

(3) 《별재》 영향력 총평

《별재》는 청대 극구 영향력이 있는 명시 선본으로서, 이동양 시에 대한 "재전"과 "부형"은 이동양 시학 생명의 후세 구축에 깊이 참여했고 조형과 차폐가 병존하는 복잡한 면향을 정현했다.

한편으로 그 경전화지공은 무시할 수 없다: 심덕잠은 11수 시작을 정선하여 칠언시를 방대한 별집에서 돌현시켜 이동양 중요 작품으로서의 지위를 확립했다. 부분 성공 개동도 주류 시학 취미나 시예에 계합하여 후세에 광범위하게 접납되고 심지어 이들 시작의 정본이 되어 유전되어 신텍스트의 전파 효력과 예술 감염력을 유효하게 제승했다.

다른 한편으로 그 차폐와 오도지과도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 "격조"를 추송하는 선시 표준은 이동양의 "복고 선성"이라는 단일 형상을 강화하여 일정 정도 그 창작의 다른 풍부한 면향을 차폐했다. 개별 주관적이거나 실패한 수개, 예를 들어 원의를 손상하고 배경을 산삭하는 등은 비록 후세에 보편적으로 접수되지 않았지만 텍스트 유전 과정의 기이와 곤혹을 조성하여 후세 학자의 질의와 변석을 일으켜 텍스트의 다원 접수 면상을 조성했다.

텍스트는 본래 "다차원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공간에서 다종 사작이 상호 결합하고 상호 쟁집하지만 어떤 것도 원시 사작이 아니다: 텍스트는 각종 인증으로 구성된 편직물이며, 그들은 문화의 수천수만 개 원점에서 왔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공"과 "과"의 병존이 공동으로 이동양 선정시의 텍스트가 후세에 다향 면모의 접수 격국을 정현하게 했다.

결론

《별재》의 이동양 시는 절대 간단한 집록이 아니라 시학 관념이 충만한 간예다. 심덕 잠은 "격조"를 척도로 엄격한 선발과 대담한 개동을 통해 이동양의 11수 시작을 위해 후세 문학 시야로 통하는 새로운 "비자"를 발급하여 이들 텍스트의 전파 범위, 접수 형태와 경전화 정도에 영향을 미쳤다.

본문 연구는 시가의 후세 운명이 그 작품의 단행본이나 별집에 의해 단독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 정도 《별재》와 같은 권위 선본에 의해 개입되고 재조됨을 표명한다. 선본은 여기서 그 쌍인점 같은 거대한 능력을 전현한다: 그것은 "선"과 "개"의 합법 권력을 통해 부분 작품을 제승, 돌현 심지어 우화하여 불후의 문학 생명을 얻게 할 수 있다. 또한 그 표준의 주관성과 역사의 국한성으로 인해 작가 창작의 풍부성을 차폐, 간화 심지어 왜곡하여 모종 면향이 장기간 홀시되게 할 수도 있다.

이동양 시가가 《별재》에서 경력한 "여행"—선중된 영요, 개동된 변천, 접수된 성공과 병기된 쟁단을 포함—은 공동으로 동태적인 문학 생명사 도경을 구성한다. 이 도경은 우리에게 일위 작가의 경전 지위와 작품의 생명력이 최초의 창작에서만 원원하는 것이 아니라 후세 일대 또 일대 독자, 선가와 비평가의 부단한 해독, 선택과 증구에 의뢰함을 알려준다. 《별재》는 의심할 여지 없이 이동양 500년 문학 생명사에서 불가결하고 영향이 심원한 관건 환절이다.